

서 면 답 변 서

소 속	평 창 군 의 회	질문위원	유 인 환 위 원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산 립 과)	일 자	질의	2013년11월28일
			답변	2013년11월29일
회 의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

- 산림치유산업 해외벤치마킹 실시현황(일본, 독일)에 대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붙임 연수보고서(일본, 독일) 1부.

- 일본 숲자원 활용 벤치마킹 -
연 수 결 과 보 고 서

2013. 7.

평 창 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외 7명)

목 차

I. 연수개요 / 2

II. 연수내용 / 3

1. 숲치유 기지 및 삼림테라피 로드 시찰 / 3

2. 시나노마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수강 / 7

3. 숲자원 활용 시설 견학 / 11

4. 자연 역사문화 탐방 / 12

III. 연수결과 / 14

숲자원 활용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연수결과 보고서

I. 연수개요

○ 목 적

-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치유 시설 및 숲자원 활용에 대한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
- 숲자원의 활용 가능한 모델사업 개발 등의 업무역량 제고 및 군정 시책 접목방안 제시

○ 기 간 : 2013. 6. 26(수) ~ 6. 30(일), 5일간

○ 연수국가 : 일본(가미이찌, 오타리무라, 시나노마찌)

○ 연 수 단 : 23명(공무원 8명, 민간인 15명)

○ 주요연수내용

- 일본의 숲 치유기지 시찰(가미이찌, 오타리무라, 시나노마찌)
- 시나노마찌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 프로그램 수강(수료식)
- 숲자원 활용 견학 : 숲 유치원, 와한약연구소직영 카페감뽀 등

II. 연수내용

1. 숲치유기지 방문 및 산림테라피 로드 시찰

◇ 가미이찌정, 오타리무라촌, 시나노마찌 등 일본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소의 산림치유기지 방문 및 테라피로드 시찰

가. 가미이찌마찌

□ 도시현황

- 도야마 현청 소재지인 도야마시 동쪽 15km, 북알프스산맥 츠루기다케-검악(칼산)-기슭에 위치한 정으로 해발 2,999m의 검악을 심볼 마크로 함
- 면적 약237km²(약 77%가 산림), 인구 약 2만2천명, 연간예산 약100억엔, 농특산물은 쌀(6,000톤), 토란(140톤), 대파(60톤), 생강 등
- 쌀농사를 중심의 농업과 섬유, 약품, 정밀부품등의 제조업이 주 산업인 전원공업도시이며, 이에 따른 유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 산림세라피기지 『쓰루기·키라메끼』 시찰

- 산림치유 워킹 만족 코스 : 느긋하게 치유하는 70분 코스
 - 산림치유 워킹은 워킹을 하면서 산림욕을 함께 즐기는 코스
- 여러 워킹코스 조성 : 전나무숲길(300m, 수령 400년의 거목), 접벚꽃가로수길, 좌선석코스, 개산숲코스, 대관음코스(33관음보살) 등
- 산림세라피스트의 안내로 코스를 순례하며 산림세라피 프로그램 실시
 - 생활속의 스트레스 예방책으로서 「심신건강만들기」를 위해 산림세라피 필요



<가미이쨌음 사무실 방문>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나. 오타리무라

□ 도시현황

- 나가노현 최북서부에 위치하며 나가도 동계올림픽 개최지 하쿠바무라와 이웃하고 있으며, 북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대자연이 펼쳐져 있고, 북쪽에는 일본 백 명산으로 꼽히는 해발 1,963m의 아마카자리야마가 있음.
- 면적 약 268km²(88%가 산림), 인구 3,221명, 고령화율(65세이상) 35%, 연예산 약 50억엔
- 지역축제로는 스와신사축제, 꽃등불축제, 불축제, 소금길축제, 메밀국수축제 등이 있으며, 특산품으로는 차노코(만두비슷함), 소바, 잼, 벌꿀, 술 등이 있음.

□ 산림테라피기지 시찰

- 아마카자리야마 기슭에 펼쳐져 있는 카마이케 주변을 비롯해 중부 산악 국립공원에 지정된 쓰가이케 자연원과 미즈바쇼가 피는 쓰가 숲, 소금길 등 마을에 여러 가지 산림테라피 로드가 있으며 각각 개성적 자연의 매력이 넘침.
- 마을내에는 10개소의 온천이 있고 숲과 자연과 함께 온천의 효능을 더한 오타리무라 독자의 “시골” 특유의 느긋한 산림 테라피를 체험할 수 있음.
- 산림치유기지의 자연체험에 오타리 테라피로드 산림치유체험, 트래킹·등산, 산림산책투어 및 거목순례의 자연체험, 노르딕워킹·우드칩 로드 등 아웃도어 스포츠 체험 등이 있음.



<오타리무라 사무실 방문>

<산림테라피로드 시찰>

다. 시나노마찌

□ 도시현황

- 일본의 지붕이라 불리는 나가노현의 북단에 위치하며, 현청 소재지인 나가노시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농산촌임.
- 면적 약 150km², 인구 약 1만명, 연간예산 약 60억엔,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토마토, 피망, 블루베리 등이 있음.
- 산림면적은 10,956ha(총면적의 약 73%), 국유림율 50%,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재하며, 연간 관광객은 약 100만명(현외손님 65만명),

스키관광객 21만명, 숙박 손님 42만명이며, 숙박시설 은 호텔, 펜션등 약 100여시설, 산업은 주로 관광과 농업이며, 관광명소로는 노지리호수, 구로히메고원, 탕그램 잇사의 마을 등이 있음.

□ 치유의 숲 산림테라피로드 시찰

- 시나노마찌는 천혜의 유럽풍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치유의 숲 시작
- 2004년 “에코메디칼&힐링빌리지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치유의 숲” 사업에 눈을 뜨며, 산림테라피기지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일본 제1기 산림테라피기지로 인증 받음.
- 2010년에는 일본산림테라피기지네트워크사무국이 설치되어 일본산림테라피기지의 중심이 되었으며, 2012년 10월에는 “글로벌 치유관광 전문양성사업”기관으로 선정된 한림성신대와 교육협력협약을 맺어 해마다 40명씩 교육을 받고 있음.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과, 개인·단체의 고객 유치, 지역의료와의 연계에 의한 지자체 병원의 의사·간호사의 확보 등 지역의료에 충실한 프로젝트 발전 이룩함.
- 요양을 목표로하는 보양·요양코스(6박7일), 단기체험의 시범체험코스(2박4일) 등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플랜 준비함.



<시나노마찌 사무실 방문>



<시나노마찌 사무실 방문>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2. 시나노마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수강

◇ 삼림휴양지역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시나노마을의 삼림 테라피·요법사업 및 트레이너 프로그램 견학

□ 치유의 숲 모델플랜

○ “치유의 숲” 체험플랜은 단기나 장기, 그린시즌이나 윈터시즌에 관계없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플랜임.

1) 보양·요양플랜(Long Stay Plan)

- 시나노마치에 체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심신을 Refresh하여 원기와 활력을 되찾는 플랜
- **산림메디칼트레이너가** 산림요법을 도와줌
- 치유의 숲 머뎀터에서는 향기요법과 건강요리로 치유의 공간을 제공함.
- **메디칼 체크** 등 의사의 서포트도 있다(현재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 조정중)

2) 시험체험플랜(Short Stay Plan)

- 산림메디칼트레이너와 함께 산림을 산책하면서 치유체험을 하는 2박 3일의 Short Stay Plan이다.
- **산림메디칼트레이너가** 산림요법을 도와줌

-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과 건강요리도 체험 가능함.
- 프로그램 기본 요금표
 - 숙박요금 : ¥10,000/인 ~ ¥18,000/인 (1박 세금포함)
 - 트레이너요금
 - ① 체험자 1인의 경우(세금포함)
 - : 반나절(3시간) 10,000엔, 1일(7시간) 15,000엔
 - ② 체험자 2인이상의 경우(세포함) 트레이너 1인당(5인까지 가능)
 - : 반나절(3시간) 15,000엔/인, 1일(7시간) 25,000엔/인
- 산림욕의 치유효과
 - 「산림테라피연구회」에서 침속의 콜티솔 농도를 이용한 생리적 변화를 검증
 - 산림욕 전후의 혈액 데이터를 비교, 혈액의 해석결과 자율신경 기능이 안정된다고 알려진 수치에 모두 근접해 있어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남.
- 숲속의 치유이미지(Healing Image)
 - 면역력 up, l/f 흔들림, 음이온, 피톤치드 등
- 산림메디컬트레이너(Forest Medical Trainer)
 - 의사와 수시로 연대하면서 숲속으로 고객을 안내하여 산림요법이 숲에서의 면역요법, 시나노마치 독자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일을 통해 태고의 DNA가 빨리 공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 산림요법, 아로마테라피등을 중심으로 한 시나노마치 독자적인 집중강의에 따라 인정된 트레이너로서, 활동은 매년 등록제도에 의한 신청이 필요함.
- 치유의 숲 6개의 키워드 : 심신의 건강만들기, 사원연수, 기업과 지역의 교류, 복리후생, CSR로서의 숲 만들기(Corporate Socisal Responsibility), 치료·교육활동(보호시설이나 시청각장애아동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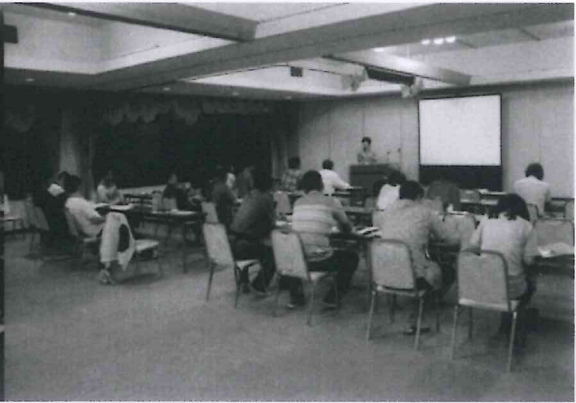
□ 치유의 숲 사업 전체개요

- C.W.니콜씨가 제창한 「산촌에 있는 삼림등, 자연자원을 건강·교육에 활용한 치유의 마을 (에코 메디컬&【힐링투어】)의 컨셉을 바탕으로 정신건강(mental health) 케어에 효과적인 삼림테라피 사업의 개발
 - 2005년 삼림자원을 활용해서 외부 고객유치를 위한 힘을 높이기 위해 숲치유 효과에 착안한 「삼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하게 됨.
- 마을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사업추진 위원회(20명정도) 설치, 동사무소에 전문 「치유의숲 담당과」 신설등 사업추진 체제 확립.
- 삼림자원을 활용한 「삼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삼림메디컬 트레이너」 양성
 - 전문가를 초빙해서 트레이너 양성강좌를 실시, 2년간 약 100명의 시민을 트레이너로 양성함.
 - 시민참가에 의한 치유의 마을 조성의 토대가 됨.
- 마을의 숙박시설(호텔·펜션등)에 허브티(herb tea) 서비스, 지역생산 식품재료를 이용한 건강한 요리 제공, 치유공간 만들기, 일정한 소프트 요건을 더해서 치유의 숲 숙소로 인정 받음.
- 의사와의 연계에 의한 삼림테라피의 의학적 효과를 검증, 결과를 사업의 PR에 활용함.
- 2006년 4월 「삼림테라피 인정 기지」로 인정됨.
- 삼림테라피 관련 안내판 설치, 코스설정(코스맵 작성), 포장 등의 인프라 정비.

-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유치 목표로 민간기업이나 건강보험조합 등의 사원연수, 복리후생사업등 단체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유치



<치유의 숲 강의중>



<치유의 숲 강의중>



<치유의 숲 강의중>



<치유의 숲 분임발표중>



<치유의 숲 수료증 전달>



<치유의 숲 수료후>

3. 숲자원 활용 시설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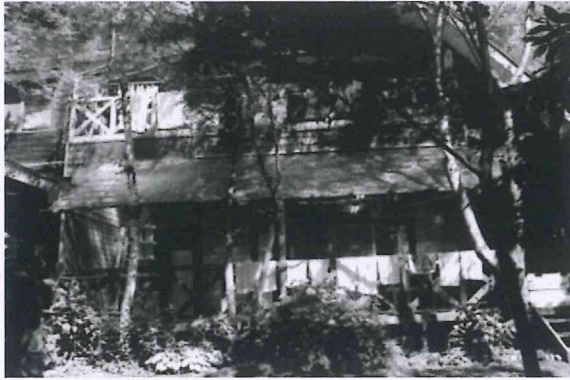
◇ 일본의 숲자원을 활용한 숲 유치원 및 자연소재의 체질별 먹거리 카페 「카페감포」 체험

가. 대지 유아 숲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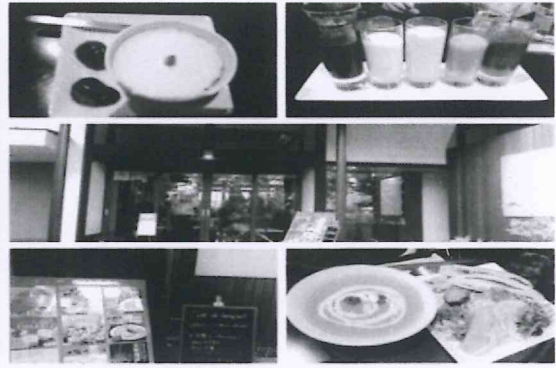
- 자연과 함께하는 숲 유아 유치원 방문
- 숲 유치원 시설 및 운영현황, 정규 유치원과의 비교, 차이점 등을 현지 직접 방문 견학
 - 비인가 시설로써, 공공기관의 운영비 및 보육료 보조없이 운영 : 전액 사용자 부담
- 부모와 유아의 숲 유치원 만족도 높음
- 효과 : 어린이의 성장에 중요, 상상력 풍부해지며, 건강해지고, 조형미술·음악, 운동부문에 높은 평가와 정서적 안정도 또한 높으며, 사회적 경향에 있어서도 숲유치원 어린이가 우위성을 보임.

나. 와한약연구소 직영 카페팜포 방문

- 와한초를 중심으로 한 자연소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생활창조를 목적으로 함.
- 인체를 포함한 자연계는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섯가지 요소를 다섯가지 색상으로 나타냄. 와한초를 비롯한 자연재료 다섯가지 색상으로 나누어 섭취하여 조화를 이루어 몸의 내부로부터 진정한 건강 “아름다움”을 이끌어 냄.
- 다섯가지 색깔 스프 : 시금치와 유채치즈크림스프, 빨강파프리카 토타쥬, 호박과 사과포타쥬, 콜리플라워와 생강포타쥬, 우영의 흑미스프
- 카페팜포 메뉴의 기본은 「茶捨汁補(차사즙보)」. “차”는 버리고 “스프”는 보충. “차”는 지나친 것을 억제 해 여분의 것을 버려 상극의 관계에 균형을 잡고 “수프”와 “스무디”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좋은 것을 더욱 성장시켜 신체의 조화를 만들어 냄.



<숲 유치원 - 대지유치원>



<와한약연구소의 카페캠프>

4. 자연 역사문화 탐방

◇ 세계 유수의 산악관광루트가 있는 3,000m급의 연봉들이 만드는 웅대한 다떼야마연봉 등 **다떼야마에리어 견학**

가. 다떼야마 크로베알펜루트

- **눈의 대협곡** : 매년봄 알펜루트의 개통시 생기는 눈벽으로 적설량이 많은 해에는 20m에 달하며, 대협곡 산보로는 4월중순에 전선개통해서 5월까지 열림.
- 목적지는 약 **3,000m의 상공**. 케이블카, 고원버스, 토로리버스, 로프웨이 등 개성넘치는 **4가지의 탈것들이** 각기 다른 경치의 재미를 더함.
- 天空을 연결하는 4개의 탈것들 : 알펜루트의 기점인 다떼야마역을 출발해서 쇼메이강을 아래로 표고차 500미터, **평균구배 24도의 급경사면을 케이블카로** 이동, 내부의 통로와 좌석이 계단모양으로 나열되어 있음. 표고차 1,473m 고저차에 의한 식물분포의 유이를 볼수 있는 **고원버스**, 다떼야마를 직하로 뚫고 일본 최고 높이의 다떼야마터널을 달리는 무공해 **토로리버스**, 알펜루트의 움직이는 전망대 **로프웨이**.

나. 구름위의 대파노라마 무로도다이라

- 표고 2,450m. 알펜루트에리어의 거점으로 절경의 장소 임.
- 다떼야마신앙의 상징인 유야마신사. 후지야마, 하크산과 함께 일본삼령산의 하나. 다떼야마연봉의 최고봉은 오난지산 3015m.
- 분출하는 유황이 굳어서 생긴 높이 3m의 유황탑 카지야지옥, 2,500m이상의 고산지대에 사는 빙하기의 유재종 라이쭈, 산화철의 영향으로 물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에서 지어진 피의 연못지옥, 산책길 등이 정비되어 있어 절경이 빼어남.

다. 웅대한 자연과 일본제일의 크로베담

- 크로베담 : 최고 높이에 있는 일본 최대의 아치형담. 높이 186m, 길이 492m로 총적수량이 2억톤. 관광방수의 대박력을 볼 수 있는 전망대광장이 있으며, 6월 26일 ~ 10월 15일은 담의 방수가 있음.
- 다이칸보 : 크로베담에서 로프웨이로 한번에 약 500m의 고저차에 의해 약 7분만에 2,316m의 다이칸보에 갈 수 있음.



<알펜루트의 케이블카>



<크로베 알펜루트>

Ⅲ. 연수결과

1. 연수평가

- 전국 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하며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는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숲자원 활용의 일본의 선진사례를 견학함.
- 공무원 8명, 주민 15명등 총 23명의 연수단은 산림치유기지 방문 및 삼림테라피로드 시찰, 치유의 숲 과정 수강등 5일간의 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쳤음.
- 일본 숲자원 활용 벤치마킹은 가미이찌정, 오타리무라, 시나노마찌 등 3개소의 각각 차별된 산림치유기지를 방문, 삼림테라피 사업의 사례를 견학하고, 치유기지별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현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나노마찌 독자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 과정을 1박 2일로 수강, 삼림메디컬트레이너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실태, 삼림테라피 관련 관광객 및 지역경제 동향, 삼림테라피 숙소인증기준 및 관리지도, 연간 2억엔의 경제효과를 얻는 노하우 등의 전문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음.

❖ 전반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자연환경이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으며, 또한 취향과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의 정서와 성향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삼림테라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2. 시책제안

가. 산림 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

□ 현 황

- 최근 산림치유를 통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을 활용한다. 산림에는 피톤치드 등 다양한 항바이러스 물질이 있어 이것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함양 도모를 수행하고자
- 산림청에서는 2012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산림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군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최소면적이 50ha이상의 집단화된 산림을 확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에는 적합한 대상이 없어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던 중 **2014년 산림청에서는 숲 치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중임을 알게 되었다. 산림치유마을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산수가 수려하고, 종합휴양지가 많은 **우리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면 군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 됨.

□ 추진방향

-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은 향기, 경관, 바람, 소리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의 가치를 발굴해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면 효율적이다.
- 2014년도 **산림치유마을조성 사업**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군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당위성을 산림청에 어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까지도 대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일자치 창출과 인력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은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군정시책**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한다.

나. 숲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현 황

- 우리군은 현재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읍·면마다 **다양한 조건으로 조성되어 있는 “길”과 평창자연휴양림** 등 산림테라피로드 운영으로서의 시설적인 부분은 많은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인 숲해설가 역시 군에서 계속 교육되어 육성되고 있으며, 숲해설가의 심화학습 과정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숲해설가협회도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 추진방향

○ 평창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 봉평면 무이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숲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휴양림 이용객 및 개별 숲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 평창자연휴양림의 활성화와 외부내방객(관광객)의 유입 증가 기대

○ 보건사업에 숲치유 프로그램 접목 운영

- 보건사업의 일환인 모자보건사업의 태교프로그램 및 정신재활프로그램에 숲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접목 운영하여
- 임산부 및 정신재활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심신 및 정서적 교감의 안정과 치유에 도움

○ 숲 놀이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학생들의 방과후 교실 등에서 활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네, 그물망, 자연놀이터, 학습시설, 조경 조성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숲체험을 경험하도록 제공

[별첨] 일본 지역신문 보도자료



<가미이찌마찌 지역신문 보도자료>

- 독일 산림치유사업 벤치마킹 -
연 수 결 과 보 고 서

2013. 10.

평 창 군
(산림과 김철수 외 4명)

목 차

I. 연수개요 / 2

II. 연수일정 및 연수단 / 3

III. 연수내용 / 5

1. 숲치유 기지 방문 / 5

2. 숲자원 활용 시설 견학 / 10

3. 자연 역사문화 탐방 / 13

IV. 연수결과 / 15

독일 산림치유사업 벤치마킹 연수 결과 보고서

I. 연수개요

○ 목 적

산림치유 선진국인 독일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마을 운영, 숲을 활용한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군의 강점인 전국 제1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강국을 선도함은 물론,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은 관광자원화로 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기 간 : '13. 9. 23(월) ~ 9. 30(월), 6박 8일

○ 연수국가 :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트메르겐트하임, 바트비리스호펜, 뮌헨, 가르밋슈)

○ 연 수 단 : 18명(공무원 5명, 민간인 13명)

○ 주요연수내용

- 산림 치유시설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 독일의 바트 베리스 호펜 등 산림치유기지 방문 및 체험, 관리운영 시스템 관련자료 수집 및 산림치유 주요사업 체험
- 치유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및 의료보험 적용 현황 파악
- 옥토버 축제 및 유기농 농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벤치 마킹

II. 연수일정과 연수단

□ 연수일정

일 자	국 가	도 시	주 요 일 정
9.23 (월)	독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 이동 및 도착
9.24 (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 발트킨더가텐 바트 홈부르그 숲유치원
9.25 (수)	독일	바트 메르켄트하임	◦ 슈타트발툼 바트 메르켄트하임 시청 및 산림치유기지 방문
9.26 (목)	독일	바트뢰리스호펜	◦ 바트뢰리스호펜 쿠아하우스 방문 (크나이프 요법 프로그램 참가, 식물요법참가 및 노르딕 워킹체험)
9.27 (금)	독일	뮌헨	◦ 헤르만스도르프 유기농마을 견학 ◦ 옥포버페스트 축제 관람
9.28 (토)	독일	가르밋슈 뤼센	◦ 가르밋슈 기후요법센터 방문 ◦ 노인슈반슈타인성 관람
9.29 (일)	독일	뮌헨	◦ 뮌헨 공항 이동, 인천항발 (기내 1박)
9.30 (월)	독일	인천	◦ 인천 도착 (12:30분 도착) - 12시간 25분 소요

□ 연수단

연번	소 속	성명	주 소	비 고
1	평창군청	이석래	평창군청	공무원
2	평창군청	채정희	보건사업과	“
3	평창군청	김철수	산림과	“
4	평창군청	이남기	산림과	“
5	평창군청	김광성	자치행정과	“
6	두리울목장	손철규	진부면 두일리	민간인
7	허브나라농원	이호순	봉평면 흥정리	“
8	충남대 교수	박범진	충남대학교 교수	“
9	레포빌(펜션)	김광희	대관령면 횡계리	“
10	팜수아	민운학	대관령면 수하리	“
11	팜수아	김지이	대관령면 수하리	“
12	산양삼재배	이기종	진부면 하진부리	“
13	숲 해설가	강영하	봉평면 흥정리	“
14	심봤다(농원)	이춘우	진부면 하진부리	“
15	허브나라농원	이두이	봉평면 흥정리	“
16	축산업	이동원	진부면 상월오개리	“
17	병내리 이장	김문희	대관령면 병내리	“
18	삼양축산	고동휘	대관령면 횡계리	“

Ⅲ. 연수내용

1. 숲치유기지 방문

◇ 바트메리켄트하임, 바트베리스호펜, 가르미쉬등 세계 최고의 산림치유
기지 방문

가. 바트 메르켄트하임

□ 개요

- 바트 메르켄트하임은 독일 중부 내륙지방에서 고대 로마로 통했던 로만틱 가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인구 2만의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요양도시다. 이곳에는 환자들의 토탈테라피(Totaltherapy)를 위해 10여개의 요양원과 요양공원, 재활병원이 빼곡히 자리잡고 있다.

□ 바트 메르켄트하임 산림치유기지 시찰

- 돼지고기와 소시지 등 기름진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독일인에게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은 당연한 운명으로 여겨졌지만 몇 년 전부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바람이 불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에 힘입어 산림휴양지대인 슈바르츠발트 인근 '바트(Bad)' 시작되는 온천 샘물 지대에는 요양시설이 부쩍 늘어났다.
-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휴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누구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용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독일 의료법에는 치료와 재충전을 위해 법적으로 10일 이내의 휴가가 보장돼 있고 장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진단할 경우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경비는 보험회사와 국가기관에서 지불한다.

도시 곳곳을 관통하는 산책로에는 동계올림픽 노르딕 스키 선수 처럼 양손에 스틱을 잡은 사람들이 많이 보임.

○ 요양 환자들을 위해 도시 전체가 요양원과 이들을 위한 산책로가 있으며, 150년전에 발견된 힐링워터가 솟아난다. 바트 메르켄트 하임 요양공원은 모두 21헥타(21만 제곱미터, 6만3636평)의 숲과 2,000 그루의 아릅드리 나무, 100만 그루의 튜울립과 장미로 이루어져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환자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 지금 독일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병에 생기기 전에 휴양을 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음



힐링워터 요법



요양공원

나. 바트뵤리스호펜

□ 개요

- 18세기 중후반 독일 뵤리스호펜(Bad Worisshofen) 마을의 가톨릭 사제였던 세바스찬 크나이프(FATHER SEBASTIAN KNEIPP, 1821~1897)는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중 당시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결핵을 앓게 됐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우연히 발견된 물 치료법에 관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냉수욕을 중심으로 한 물요법을 이용해 결핵이 치유되는 기쁨을 보게 되고 이후 완치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이름을 딴 크나이프 물치료 요법을 고안하게 된다.

□ 바트 뵤리스호펜 쿠어하우스 방문 산림치유기지 시찰

- 세바스찬 크나이프(FATHER SEBASTIAN KNEIPP, 1821~1897) 신부가 고안하여 보급한 크나이프 요법은 독일 전국에 60여 개가 있고 전세계에 6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제 크나이프 의사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크나이프 요법은 물을 이용한 자연요법을 중심으로 산림산책을 하는 운동요법, 영양균형을 맞추는 음식요법, 허브나 약초를 이용한 요리법이나 입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은 90%는 개인이 지불하고 10%정도가 의료보험에서 지불한다. 상품의 질에 대해 많이 생각하다보니 소비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훨씬 높다. 바이에른 주의 평균 숙박비보다 뵤리스호펜의 숙박비가 35유로가 더 비싸다.

시에서 요양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주고 보양세 및 부과세를 시에 납부한다. 세수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1년에 400만유로이며 이를 걷어들인다.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및 서프라이

즈 추가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1년에 3000개의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공원관리를 위해 20여명이 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



크나이프 요법 및 산림치유 범규 설명



크나이프 식물 요법 프로그램 참가

다. 가르미슈

□ 개요

- 독일의 바이에른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추크슈피체 산(2,963m) 기슭의 로이자흐 계곡과 파르트나흐 계곡이 만나는 지역에 있다. 고대촌락인 가르미슈와 파르텐키르헨이 합쳐진 이 도시는 1935년에 자치시로 인가를 받았으며, 옛날의 전원적 특징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건물들로는 가르미슈에 있는 중세의 장크트마르틴 구교회와 바로크식 지역교회인 장크트마르틴 신교회, 파르텐키르헨에 있는 18세기 장크트안톤 순례교회가 있다. 인구는 1만5천명의 도시로 관광이 주 산업이다.

□ 가르미슈 기후요법센터

- 연간 420만명이 가르미슈를 거쳐서 오스트리아를 가며 125만명이 숙박을하며 36만명이 방문을 한다. 동계올림을 치렀으며 가장 높은 추크슈피체 산이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자원이다

2억9천만 유로가 관광수입이며 수익의 60%는 여름에 발생하고 있다. 가르미슈의 4가지 중요 산업 요소는 ①휴양지 ②스포츠 ③국제회의 ④건강이다

로고는 태양, 순수, 공기이며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특히 많이 오며 해발 1000m 이상에서 숙박하고 산책코스를 걸음으로써 완치가 된다고 한다. 산책코스는 300km로 300여개의 특성을 카테고리화 해서 관리하며 다양한 환자들이 오고 있다. 환자의 종류는 ①호흡기 환자 ②알레르기환자 ③심장질환자 ④만성피로 ⑤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유일하게 의료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해발에 따른 연구를 통해서 환자의 타입에 맞는 해발에서 치료요법을 하고 있다.



가르미슈 기후요법 강의



가르미슈 기후요법 체험

2. 숲자원 활용 시설 견학

◇ 독일의 숲자원을 활용한 숲 유치원 및 유기농 농장 방문

가. 프랑크푸르트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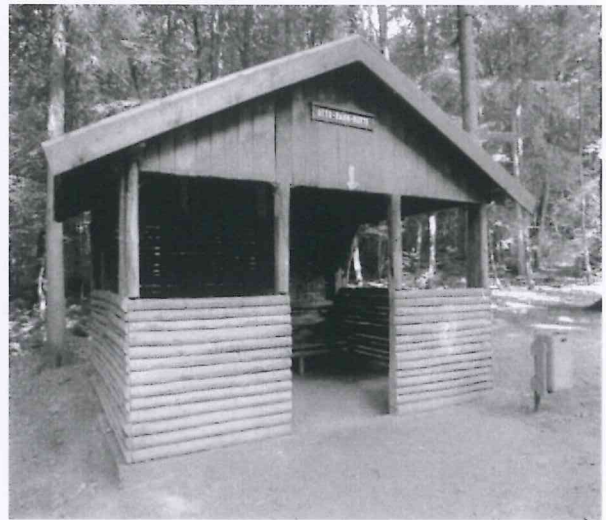
- 1240년부터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린 이 도시는 현재 중요한 상업 및 금융 중심지이다. 세계적인 증권 거래소(1585)가 있으며 인기 있는 서적과 자동차 박람회를 비롯해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수많은 박람회가 열린다. 중요한 내륙항이자 철도와 도로 교통의 중추이며, 부근에 있는 라인-마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의 하나이다. 명소로는 슈테델 미술학교, 쟈켈베르크 자연사박물관, 리비크하우스 조각박물관, 복원된 괴테의 집, 괴테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이 있다.

□ 발트킨더가르텐 바트 홈부르그 숲유치원

- 독일에는 800개의 숲유치원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에는 30개가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발트킨더가르텐 바트 홈부르그 숲유치원은 숲의 보호를 위하여 45개의 공간을 마련하여 순환하면서 숲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준 간식과 도시락을 배낭을 넣고 숲에 와서 자유롭게 놀고 개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아침식사 전후를 기준으로 아침식사 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놀고 식사후에는 선생님이 도구를 주고 그룹을 형성하여 나이에 맞는 놀이를 함. 자연속에서 놀면서 자연적으로 몸이 트레이닝 되어 학습 속도도 빠르다고 하며 6세 이상 아이들은 2달 정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고 함.



숲유치원 프로그램 및 운영 설명



숲속 어린이 휴식 공간

나. 뮌헨

□ 개요

- 뮌헨(Munche) 는 독일 바이에른 주의 최대 도시이자 주도이다. 이 도시는 알프스 북부의 이자르 강가에 위치한다. 뮌헨은 독일 내에서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세번째로 큰 도시이다. 금융·상업·공업·교통·통신·문화의 중심지이다. 식품가공, 정밀 광학기 기, 전기제품, 화장품, 의류, 맥주 등의 제조업이 활발하다.

□ 헤르만스도르프 유기농마을

- 1986년 소세지 고장을 하던 슈바이스브룩이 소세지 공장을 팔고 유기농업을 시작하였다. 농장규모는 143ha이며 이중 숲은 3ha, 밭이 80ha이며 밭에서는 밀과 유기농 채소를 순환농법으로 재배 하여 생산된 곡물로 유기농 빵과 맥주를 만들고 고기는 직거래 와 소세지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돼지 사료도 유기농이며 자연에서 생산하는 치료제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지하에는 육가공장과 유가공장, 1층에는 농가식당이 있고, 2,3층에는 빵공장과 주정공장이 있다. 판매물품은 평균 30%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80%정도가 직거래이다.

고용인원은 140여명이며 유기농마트를 직접운영하며 뮌헨에 14개 마트를 가지고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돼지의 경우 출하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살될 수 있도록 자체 내도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축분을 이용하여 모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쓰고 있다.



유기농 돼지 농장



유기농 재배

3. 자연 역사문화 탐방

◇ 세계 3대 축제중의 하나인 옥토버페스트,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이 노인슈반슈타인성, 유럽4대 고성중의 하나인 하이델베르크성 견학

가. 옥토버페스트

- 1810년 10월 바이에른공국왕국의 초대 왕인 루드비히 1세의 결혼에 맞추어 5일간 음악제를 곁들인 축제를 열면서 시작됨. 이후 1833년 뮌헨의 6대 메이저 맥주회사가 축제를 후원하면서 4월축제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축제로 발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째 일요일까지 16일간 열리며, 독일 국민은 물론 전세계에서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
- 축제 첫날에는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뮌헨 시청 앞 광장에 걸쳐 있는 100여 개의 마을과 각종 직농단체가 왕·왕비·귀족·농부·광대 등으로 분장하고 시내를 행진한다.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 뮌헨의 6대 맥주회사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어 뮌헨 시장이 그해 첫 생산된 6°짜리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고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한바탕 맥주축제가 벌어짐.
- 1999년의 경우 전세계에서 680만 명이 축제에 참가해 600만ℓ의 맥주와 63만 마리의 닭, 79마리의 소가 소비되었고, 1,000개가 넘는 독일의 맥주회사가 참가. 이후 참가자 수가 늘어나 2000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갈수록 그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축제 수익만도 30억 마르크(약 1650억 원)를 넘어섬. 브라질의 리우축제(리우카니발), 일본의 삿포로눈축제와 함께 세계 3대축제로 불림.



옥토버페스트 축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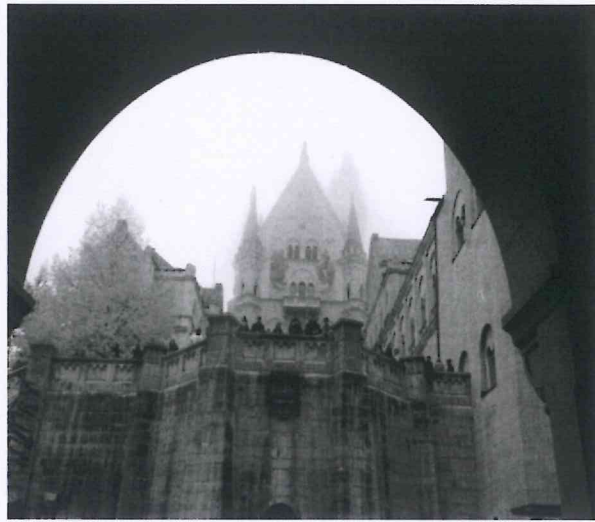
호프브로이 하우스

나. 노인슈반슈타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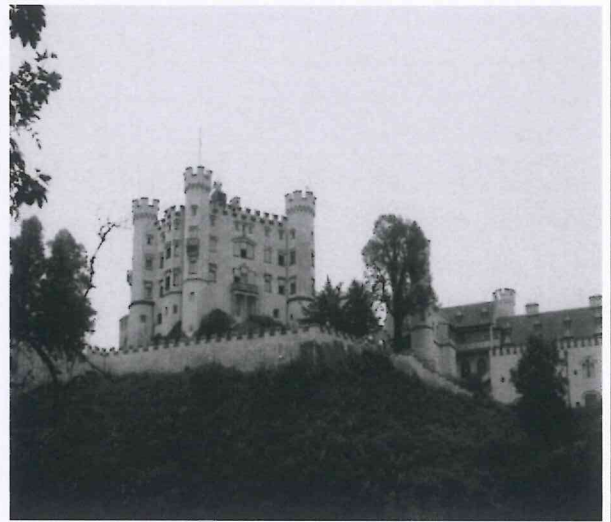
-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수많은 엽서, 퍼즐, 광고와 유명한 디즈니 랜드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 등장하는 성의 모델임.

바이에른의 왕이었던 루트비히 2세(1864~1886년 재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주권을 잃고 노인 슈반슈타인 성을 비롯한 환상적인 중세의 성을 짓는 데에 중세의 여생의 대부분과 재산의 전부를 쏟아 부음. 1886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함.

루트비히의 몽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크리스티안 얀크(1833~1888년)의 원래 직업은 무대 감독이며, 단순히 중세의 성을 충실히 재건한 것이 아니라, 로마네스크, 비잔틴, 고딕 양식이 한데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침. 모든 방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그 밖의 바그너 테마를 묘사한 조각과 프레스코를 볼 수 있으며, 성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중세의 성배 전설을 표현하고 있음. 안개가 많아 원경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



노인슈반슈타인 성



호엔슈반가우성

IV. 연수결과

1. 연수평가

-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경쟁제일주의 등으로 사람들은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손상된 마음과 감정을 치유함으로써 온전한 심신상태로 회복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힐링(healing)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그 대상이 산림속 치유가 최적의 치료방법으로 대부되면서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는 산림 치유(forest healing)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선진국인 독일의 선진사례를 견학함.
- 이번 연수단은 산림치유와 관계된 공무원 5명, 주민 1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산림치유기지 방문, 크나이프요법 및 노르딕워킹 체험 시찰, 숲유치원 방문, 유기농농장 체험, 가르미쉬 기후요법센터 방문 등 6박8일간의 연수일정을 마쳤음.

- 특히, 독일의 산림치유사업 벤치마킹은 바트메리겐트하임, 바트뵘리츠호펜, 가르밋슈등 3개소의 산림치유기지를 방문하여 산림테라피 사업의 사례를 견학하고, 치유 기지별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현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산림테라피 사업의 사례에서 얻어진 시사점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다.
 - 첫째, 산림의 건강 치유 효과에 대한 경험적 지식에서 더 나아가,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 둘째, 인증제도나 보험제도등 정책적 혹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건강 치유효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이고,
 - 셋째, 단순히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이 위치한 마을들을 중심으로 기지나 요양 마을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 시책제안

가. 자연 치유사업 추진

□ 현 황

- 당초 올해 6월 일본 나가노현 시나노마찌를 벤치마킹 할 때 까지만 해도 우리군은 산림치유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개월 사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자연치유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은 자연치유를 통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을 활용한다. 산림에는 피톤치드 등 다양한 항바이러스 물질이 있어 이것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함양 도모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융복합 산업육성 일환으로 자연치유 사업을 관광과 접목함은 물론 먹거리에도 접목하여 유기농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의료산업에도 연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축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 산림청에서는 2012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산림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산림복지법이 발의 되었고 **2014년 산림청에서는 숲 치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을 계획중이다. 자연치유사업과 산림치유마을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산수가 수려하고, 종합휴양지가 많은 **우리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면 군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 추진방향

- 자연치유사업은 국민의 건강한 삶 유지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에서 자연치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청은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자연치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도 자연치유사업에 관심이 매우 높다.
- 또한 국회에서도 자연치유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주호영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을 발의 중에 있으며 점차

자연치유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군은** 산림의 가치를 발굴하고 객관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회추경에 예산(50,000천원)**을 확보하여 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계획중이다.
- 2014년도 자연치유사업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군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당성 확보하여 타 지자체 보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산림청만 보더라도
 - 2005년 한국 산림치유포럼 설립
 - 2007년 IUFRO Task Force of Forest and Human Health 설립
 - 2009년 국립 산음 치유의숲 개장
 - 2011년 국립 청태산 치유의숲 개장
 - 2012년 산림치유지도사과정 개설 및 교육 실시
 - 2012년 산림치유의숲(힐리언스 선마을) 인증
 - 2013년 산림치유지도사 1급, 2급 인증시험 실시
 - 2013년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착공
 - 2013년 산림청 산림복지 종합계획 수립
 - 2013년 산림복지법 발의
 - 2013년 한국 자연치유포럼 설립

그 행보가 매우 빠르다. 이는 범 정부차원에서 점차 치유사업이 가시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군도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만들고자 2009년 산림수도평창을 선포하였고, 산림수도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에는 산림수도 평창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림수도 길 용역도 완료하였다.

또한 이미 일본의 나가노현 시나노마치를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독일을 벤치마킹 하게 된 것이다.

-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까지도 대비한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일자치 창출과 고급 인력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보다 한걸음 더 나가 산림치유가 중심이 되는 자연치유마을 평창만들기사업을 국정시책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한다.